

세계관

인류의 21세기는 찬란했다. 핵융합과 원자력 기술의 일상화, 인간은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과 충성심을 지닌 인공지능, 마침내 완성한 초전도체... 각종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중 화룡점정은 2070년대에 발견된 신자원 '퓨라이트'였다. 인류는 물질과 반물질을 합성해서 양전자 1g의 양으로도 원자폭탄 3개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축적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퓨라이트의 발견으로 이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안 가 퓨라이트는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 자원으로 쓰였으며,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다. 퓨라이트를 발견한 학자는 이 물질의 연구와 상용화를 위한 회사 F사를 설립했고, 단숨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각종 세계기구에도 F사의 입김이 닿았으며, 실질적인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에는 그림자도 존재했다. 인류의 수는 120억을 넘겼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면 그보다도 훨씬 많았다. 유토피아를 표방하는 F사의 임원진에 대한 대중의 불신도 커져갔다. 기후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졌으며, 미디어도 지구가 한계라고 입을 모아 보고했다. 그즈음, 물리학과 생명공학의 대가였던 맥스웰 박사는 퓨라이트의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수축과 팽창을 통한 새로운 우주 항해법인 '맥스웰서프'를 발명했다. F사는 곧바로 화제의 인물인 맥스웰에게 접촉했고, 머지않아 새로운 22세기를 위한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인류 기술의 찬양과 제2의 퓨라이트 채굴을 내걸었지만 진짜 목표는 F사 임원진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과 냉소를 외면한 채, 우주개발팀 '헌트HUNT(High-potential Universe Navigation Team)'를 창설했다.

참고링크)

[SF 영화에서 나오는 초고속 이동 '워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주\]](#)